

불교텔레비전

불자들이 호응 속 개국 행로 "쾌청"

주식공모 성황·제작 순조·방영계획도 수립

도필선 기자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태웅)이 주주공모, 프로그램 제작, 방영프로그램 및 시간을 확정 하는 등 내년 3월1일 개국을 향해 힘차게 달리고 있다.

마감했다고 설명했다. 9월10일부터 시작된 불자주주공모는 일반불자들의 참여 또한 눈에 띄게 많아서 앞으로 불교TV의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1993년 7월15일 프로그램공급업 사업허가신청서 제출을

시작으로 한 불교TV는 1995년 3월1일 개국특집을 마련, "안녕하십니까? 불교텔레비전입니다"로 불교TV 첫방송을 한다.



◇ 불교텔레비전 편집실의 직업관경

시작으로 오후 3시까지의 낮방송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의 저녁방송으로 이뤄진다.

불교TV 사할대항 가족대항 교리 퀴즈프로그램 "퀴즈특집! 이 뭐?" 어린이대상 "안화국 장 은하철도 999"등 교리강화

아래 다양한 방송으로 불자가 정 구석구석에 법향을 전하게 된다.

"종단 발전에 앞장 다짐"

천태종 신도단합법회 성료

천태종 전국 신도단합법회가 10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설악산 대명도에서 개최됐다.

장=양귀광스님 △교유부 문화과장=곽수산스님 △총정사서실=박명화스님 △총무부 서기=이문선·이종래스님 △교무부 서기=김수봉스님 △사회부 서기=김태진스님.

성공사 2주년 법회

천태종 성공사(주지 화산) 창건 2주년 기념법회가 지난 3일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료됐다.

삼광사 신도회 5주년

천태종 삼광사 신도회(회장 김관원)는 지난 1일 신도회 창건 25주년을 맞아 삼광사 지관전에서 기념법회 및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했다.

총무원 인사단행

△재무부 재정국장=정필화 스님 △교유부 문화과장=정필재 스님 △교무부 교무과



영가들의 극락왕생 기원 조계종은 지난달 3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성수대교 붕괴 추모호 유람선 화재 등으로 유명을 달리한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합동 위령재를 봉행했다.

"안방 부처님이 기다려져요"

3대가 불교TV 주주된 김동근의원 가족



"TV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겠다 환희심이 남니다." 지난 31일로 마감한 불교TV 주주공모에 3대가 동참한 김동근의원(민자당) 가족의 한결같은 말이다.

부인 고휘영씨는 "불교TV의 개국이 손꼽아 기다려져요. 불교TV 덕분에 우린 법향 가득한 불자기질이 됐죠"라며 자랑스러워 했다.

청정수행·종생제도 서원

태고종, 합동독도 수계식 회향

태고종(총무원장 서봉)은 지난 1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제18회 합동독도 수계법회를 회향, 사미 55명 사미니 13명 등 모두 68명의 새 스님을 배출했다.

을 통해 수계자격을 부여했다. 1일 회향식에서 박서봉 총무원장은 "계를 받고 가사를 수하였으니 세속의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제도할 뿐 아니라 종생제도와 청정한 신심배양에 힘쓰라"고 당부했다.

태허스님 종정추대

본원종 연화정사서

대한불교 본원종(총무원장 대화) 제2대 종정 권태허 대종사 추대식이 지난달 24일 평창

지역 불교발전에 기여

제주불교협 창립... 회장 증원스님

제주불교협의회(회장·종원)가 지난달 29일 제주 오리엔탈 호텔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정식으로 출범했다.

시암 주지스님과 신행단체 대표를 이사로 선임키로 하는 등 시, 군, 면 단위로 지부와 지회들 운영, 체계적인 조직으로 확대시켜나갈 방침이다.

등 연화정사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대식에는 각 종단 대표스님들과 본원종 종도들 5백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증정 취임식을 거행했다.

창종 63주년 기념법회

법화종, 세계평화 기원

한국불교 법화종(총무원장 김광래)은 지난달 28일 한국일보 12층 강당에서 창종 63주년 기념 "세계평화 평화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보살심선계 관정불사

진각종 전국 심인당서

대한불교 진각종(총무원장 지광)은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대진 대구 부산 등 전국 심인당을 대상으로 보살심선계 수계관정법사를 봉행한다.

청정국토 가꾸기 운동

진각종 청정국토가꾸기 운동

청와대에 있는 불상이 무슨 죄가 있는가.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를 둘러싸고 "대통령의 종교색"과 "청와대의 불상"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뜻지못한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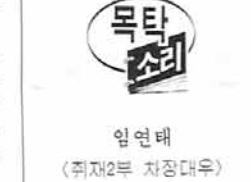
통령이 청와대 관저 뒷산의 불상을 치워버렸기 때문이라는 발상 자체는 "대형사고"가 주

의미하는가, 어디까지나 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언론을 통해 불상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과시한 청와대측의 태도 또한 불교인의 입장에서 만족스럽지 못하다.

청와대 부처님이 무슨 죄?

급기야 일부 외신기자들이 자극에 이입한 소문을 근거로 한 기사를 송고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문제는 청와대측의 자세에 있다. 청와대측은 본지의 사진 촬영 협조에 대해 "군사적 이유"와 "소문에 대한 과민반응" 등을 이유로 강력히 거부하며 "일간지 기자도 못 찍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연태 (취재2부 차장대우)

수미산 여행사는 열린 세상을 향한 불자 여러분들의 눈, 발, 귀가 되겠습니다.



\* 호도 대잔치(제1차)
오곡이 무루 익어가는 가을을 맞이하여 회갑, 고회를 맞이하신 부모님들을 위하여 불교의 나라 태국에서 피로연을 열어드리며 아울러 관광도 하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 회 비 : 1인당 55만원
▲ 제 1 차 : 1994년 11월 22일~11월 26일
▲ 접수마감 : 1994년 11월 15일
▲ 제 2 차 : 1994년 12월 13일~12월 17일
▲ 접수마감 : 1994년 12월 5일

日程表

Table with columns: 일자 (Date), 지역 (Location), 일 (Event/Activity). It details the itinerary for the Ho-do Grand Banquet, including travel to Thailand and various cultural and religious activities.

\* 상기일정은 출발당시의 항공세율/현지사정에 의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인도 성지 순례를 어렵다고만 생각하십니까?

그럼, 지금 수미산 여행사로 문의하십시오. 풍부한 경험과 친절한 안내가 여러분을 따뜻하게 모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도라하더라도 저희 수미산과 함께라면 만족하실 것입니다.

12월 23일 인도성지순례(16박 17일) 회비 220만원!

Table with columns: 여행번호 (Travel No.), 방문지 (Destination), 여행일정 (Itinerary), 요금 (Fees), 출발일 (Departure Date). It lists the details for the 16-night, 17-day pilgrimage to Indian holy sites, including destinations like Varanasi, Gaya, and Bodhi Tree.

\* 상기 일정 중 단체 출발시에는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코스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Advertisement for (주) 수미산 여행사 (Sumeisan Travel Agency). It includes the company name, address (110-140 Seoul), phone number (02)720-3241-7, and website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the Government of India Tourist Office. It provides the address (Seoul), phone number (02) 739-9008, and fax number (02) 739-8153.